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피

최 강 현*

목 차

I. 머리 말
II. 이전까지의 연구
III. 세자료와 몇 가지의 문
IV. 지은이에 대하여
V. 몇 수 말씀

I. 머리 말

여기서 살펴려는 "漂海歌"는 미발표 작품이 아니다. 이 "표해
가"는 1914년 10월 "青春" 창간호에 " móc글 새
맛"이라는 부제로 소개되면서 우리 국문학
체에 널리 알려지게 된
漂流紀行歌辭의 한 편
이다. 그리고 이 작품
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
앙도서관에 간아 있는

* 弘益大學校 國語教育學科 教授

--- 67 ---
李用基選 “樂府”上冊에 실려 있는 것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가람문고의 “雅樂部歌集”1책에 실려 있는 것과 함께 3종의 이본이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지온이에 관련하는 작품 첫머리에서 지온이 스스로가 “耽羅居人 李邦翼은 세대로 武科로서”라고 밝힌 것에 근거한 “正祖朝人 이방익” 이외에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데 필자는 최근에 귀중한 문서 한 쪽에서 드박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그 문서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이 작품의 지온이에 대한 출생연대와 경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이제까지의 연구

이제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다만 李相寶님이 “絕島流配의 憤1)에서 “鴻鴻歌”의 지온이인 李邦翼과 같은 사람이며, 그 이름자 “翼”은 “翎”이라도 음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언급에 대한 異議를 제시한 필자의 견해로 “鴻鴻歌의 지온이에 대하여2)와 “海洋文學研究—주로 ‘漂海歌’를 중심하여—”3)와 “韓國紀行文學研究—주로 조선후기 기행가사를 중심으로—”4)에서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끼жив의 멋들여 언급한 것이 있고, 최근 姜錫만님이 발표한 글이 있을 뿐이다.5)

1) 李相寶『絕島流配的 憤』(『文學思想』45호, 서울: 文學思想社 1676.6)
2) 羅永鎮『홍덕가(鴻鴻歌)의 지온이에 대하여』(『韓國言語文學』20輯, 서울: 蟻雪出版社 1981.12).
3) 『한국해양문학연구(海洋文學研究)—주로 “漂海歌(漂海歌)”를 중심하여—』 (『省谷論叢』12輯, 서울: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9).
4) 『韓國紀行文學研究』(서울: 一志社 1982.5).